

한글꼴과 표의성

구슬기

서울여자대학교 조형연구소

Shape of Hangeul letter and semantic elements

Gu, Seul-gi

Seoul Women's Univ. Art and Design Institute

주제어 한글, 표의성, 한글꼴, 자질체계
hangeul, semantic elements, shape of hangeul, featural writing system

투고 2012. 5. 25 - 6. 10 심사 2012. 6. 12 - 17 게재 확정 2012. 6. 20

차례

1. 서론
2. 한글의 표의적인 실마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자료근거
 - 2.1. 창제 원리에서 찾을 수 있는 표의적 실마리
 - 2.2. 한글꼴에 담긴 표의적 실마리
 - 2.3. 어원 낱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의적 실마리
 - 2.4. 기존 작품에서 표현된 한글의 표의성
3. 한글의 표의성을 드러낸 작품
4. 결론
 - 주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글의 표의성과 관련되어 각 분야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그를 연구자의 작업으로 표현하여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글은 표음문자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낱소리글자계통의 음소문자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글은 소리를 최대한 그대로 시각화 하고자 한 문자로서, 그 특성을 살린 표기글자로서의 확장성, 세계 발음표기기호로서의 가능성 등 자유롭고 신선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글의 본질을 탐구하고 새로운 특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가시화되고 계속해서 새롭게 발굴되는 한글의 특성들의 실례⁰¹를 통해 한글이 단순히 표기만을 위한 글자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생각되었다.

한글관련 자료조사를 통해 자질체계, 통합성⁰², 표의성의 개념을 접하게 되었다. 한글 생성원리에 관련된 자료, 한글의 표의적 실마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어원(語原)과 관련된 자료를 접하면서 각기 다른 분야에서 다른 관점으로 서술되고 있는 연구 자료의 비교 대조를 통해 한글의 표의성에 대해서 직, 간접적으로 연구가 지속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다. 또, 한글의 표의성에 대해 구체적 예시까지 제시한 몇몇 심도 깊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연구자는 한글꼴에서 표의적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음에 동의할 수 있었다.

한글의 표의성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새롭게 발견되는 한글의 특성들을 접하면서 연구자는 한글은 완성된 대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특성과 본질을 발굴해 내고 활용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 대상임을 깨달았다. 이번 연구에서 한글의 표의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하고, 그를 작업으로 표현함으로써 한글이 가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한다.

2. 한글의 표의적인 실마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자료근거

보편적인 표의(表意)의 개념은 말의 뜻을 나타냄을 말한다. 문자범위에서 표의라는 용어는 글자 하나당 개념하나에 대응되는 뜻으로, 그러한 문자를 통틀어 표의문자⁰³라고 한다. 대표적인 표의문자는 한자가 있고, 상형·지사·회의·형성·진주·가차 육서의 방법을 통해 형성되었다. 한글은 상형의 방법을 빌었으나 한자에서의 상형과는 다르다. 한자에서의 상형은 물체의 형상을 본떠 글자로 형상화 했으나, 한글은 소리를 내는 기관과 소리를 내는 우주만물의 원리 즉, 개념을 설득력 있게 시각화했다. 한글에서의 표의성은 글자 형태 그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상징성과 더불어 한글끝의 생성철학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적인 우주만물의 원리와도 부합되는 성질을 말한다.

기존 한글관련 연구에서 한글이 표의문자의 특성⁰⁴이 있다고 표현된바 있으나 그는 언어 분야의 맞춤법과 관련된 것으로 본 논문에서의 표의성에 대한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디자인적 측면에서 한재준(2008, 2009)은 한글을 표의성까지 품고 있는 글자⁰⁵라고 주장 한바 있으며, 그 구체적인 예를 전시와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연구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한글의 특이성과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된다.

2.1. 창제 원리에서 찾을 수 있는 표의적 실마리

음양오행, 우주의 원리를 담은 글자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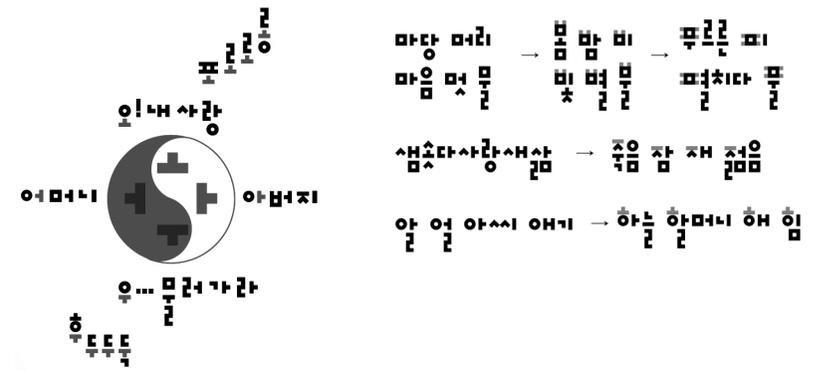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理既不二
則何得不與天地鬼神同其用也

훈민정음 제자해 첫머리에서 볼 수 있듯 한글창제의 밑바탕에는 동양철학(역학易學)이 깔려 있다. 역학의 뼈대는 태극음양 사상이어서, 이를 살펴봄으로써 한글의 본질적인 특성과 성질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홀소리글자는 ·천(天) —지(地) | 인(人)을 상형한 후 각각을 조합하여 만들어졌다. 홀소리 글자는 태극에서 나오는 음(陰)과 양(陽)의 동(動)과 정(精)의 상대적 관계⁰⁶를 대칭적인 형태로 그대로 시각화했고, 그 때문에 끝에 담긴 뜻이 명쾌하다. 닿소리 글자는 오행(五行)원리를 따라 구강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어졌다. 오행은 우주순환 이치를 다섯 개의 원소(물水, 나무木, 불火, 흙土, 쇠金)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으로, 『훈민정음』에는 이러한 원리를 빌어 글자를 생성한 이유는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치가 우주의 이치 속에 들어있기 때문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⁰⁷ 우주생성의 근본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글 각 낱자 끝에는 각자마다의 심오한 뜻이 깃들어 있으며, 그 때문에 인지적으로 납득되는 표의적인 실마리를 부분적으로 엿 볼 수 있다. [그림 1, 2 참고]

그림 1. 홀소리 글자의 표의성
(출처: 한글날 조직위원회, “한글, 스승 -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훈민정음”, 경복궁 수정전, 2008)

그림 2. 닿소리 글자의 표의적인실마리
(출처: 한글날 조직위원회, “한글, 스승 -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훈민정음”, 경복궁 수정전, 2008)



2.2. 한글끝에 담긴 표의적 실마리

모든 글자는 소리, 꼴, 뜻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각 속성별로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문자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은 현존하는 타문자와는 전혀 다른 글자이기에, 한글을 지칭하는 명칭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특히, 한글의 소리와 꼴의 긴밀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특이성 때문에, 자질글자⁰⁸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자질글자는 한글의 음운적 자질과 글자의 형태자질이 일치하는 특성, 즉, 거센소리일수록 획을 더해가는 규칙적인 법칙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다. 본 개념이 나타난 이래로 음성학적 측면에서 한글이 타 글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소리글자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관련 선행연구자료들을 통해 한글이 소리와 꼴의 관계 뿐 아니라, 꼴과 뜻의 관계도 엿볼 수 있는 글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참고]

또한, 연구자는 각 낱자의 전개방식이 가로획으로 가획할 때와, 세로획으로 가획할 때로 가획의 세부적인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한글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훈민정음에서는 가획의 뜻은 모두 같다⁰⁹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단지 이체자의 가획원리만 다르다라고 했다. 그외에 기타 세부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인지 가획원리의 세부적인 방법이 다른 이유에 대해 소리 내는 기관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한 연구¹⁰, 형태 그 자체를 역학적인 이론과 결부시켜 해석한 연구¹¹, 천문적인 이론과 결합하여 해석한 연구¹², 상형이자방고전(象形而字倣古篆)에 따라 분석한 연구¹³ 등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고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왔다. 본 내용을 통해 한글 가획 원리와 그에 따른 꼴에는 소리의 세기를 표시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뜻이 깃들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글의 꼴과 뜻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려면 좀 더 넓은 분야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고, 한글의 생성원리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표 1. 한글의 표의성에 대한 선행연구 모음

분류1	분류2	연구자/출처	내용
한글의 표의성에 대한	한글 창제 원리	훈민정음 해례본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理既不二 則何得不與天地鬼神同其用也… 夫人之有聲 本於五行合諸四時而不悖 叶之五音而不戾. (중략)
	철학 사상	류영모 (1982, 1988, 2008)	- 말을 보이게 하면 글이고, 글을 들리게 하면 말이다. 뜻을 나타낸 소리가면서 바른 소리를 그대로 쓰면 글씨가 된다. - “새 것, 옛 것, 서쪽, 동쪽이 없다. 다 하나다.”, 동서 문화의 대등하고 주체적인 통합 - 한글은 우리 뜻을 낸 소리로 쓴 우리 글씨, - 우리의 뜻과 소리를 나타내는 한글을 쓰면 ‘우리 속’이 ‘웃는다’.
		문효근 (1993)	제자의 원리에는 역易의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성론生成論과 『노자론』의 유출사상流出思想에 기반을 둔 송학적宋學的인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이론이 전개되어 있다.
간접적 연구 자료	한글 연구	한재준 (1997, 2007, 2010, 2011)	- 상징성이란 이미 ‘말소리’에 담겨 있는 것 - 소리글자의 ‘극치’ - 소리만이 아니라 의미까지 아우르는, 곧 표음글자에 속하지만 표의성도 품고 있는 체계 - 언어학이나 문자학의 관점의 가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디자인적 가치는 이제야 겨우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사용자들조차도 한글이 소리와 의미를 아우르는 매우 독특한 표기 체계의 디자인이라는 사실에 둔감할 정도이다. - 보편성을 갖추었고, 경제적, 과학, 통합적인 글자입니다. 특히 소리, 꼴, 뜻이 동시에 작동하는 글자라는 점이 아주 독특하지요. - 한글은 소리글자이지만 표의성도 가진 글자이지요. 그래서 소리꼴뜻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상수(2004)	뜻과 꼴이 맞는 어려움
	안명철(2005)	- 훈민정음에 대한 답의 모든 것이 음운론적 가치에만 있음이 아님 - 대부분 문자 체계에서 문자가 표시하는 음성 정보는 소리와 필연적 관계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시각과 청각의 공감각적 충위가 존재한다는 사실(큰소리, 어두운 소리)을 고려한다면 음성정보의 문자화에 대한 기호론적 양상에 상징 이외의 것이 반영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언어	이여령(2009)	말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소리와 느낌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뜻을 알기도 전에 소리가 먼저 우리 생각을 나타내는 거야.

한글의 표의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	한글 창제 원리	훈민정음	- ㅇ은 비록 어금닛소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ㅇ과 비슷하여 마치 나무의 움이 물에서 나와 부드러우며 아직 물 기운이 많음과 같기 때문이다. - ㄱ은 나무의 바탕을 이름이요, ㅋ은 나무의 무성하고 자람이며, ㆁ은 나무가 나이가 들어 싹씩하게 된 것이므로, 여기까지 모두 어금니에서 본뜬 것이다.
	철학 사상	류영모 (1982, 1988, 2008)	한글의 홀자는 ·(天), —(地), (人)을 으뜸으로 하여 만든 것이다. <·>음은 아오(AU, AO)로 읽는다. 본디는 원음(原音)으로 아기가 웅얼이할 때 처음 내는 소리다. 병어리가 분화되지 못한 소리를 내는 것도 ·음이다. 원음이 수직으로 내려 사람인 < >가 되고, 원음 ·이 사람 < > 앞애와 <·(어)>가 된다. ·가 땅인 —위에 가서 <—(오)>가 되고 — 아래에 와<·(우)>가 된다.
		이정호(1990)	ㄱ은 마치 역(易)에서 말하는 「만물(萬物)이 자뢰(資賴)하여 비릇는 건원(乾元)」과도 같아서, 하늘에서 생명의 씨가 땅으로 내려오매 이것은 수직적인 사람으로서 건괘(乾卦)의 네 가지 덕(德) 가운데 「원(元)」의 덕(德)을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ㅋ은 ㄱ위에 다시 ㄱ을 더하여 만든 만큼 성장(成長) 증대(增大) 배가(倍加) 등의 뜻이 있다고 보겠다./ ㄷ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양이 무엇인가를 담아 두는 옆터진 꺾짜이나 또는 오쟁이 모양으로 옆으로 터진 그릇 같은 느낌이 든다./ ㄴ은 그것을 순(順)히 받드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ㅁ이 ㅁ을 위로 벌려내어 전개(全開) 개장(開張)의 뜻을 나타냄/ ㅍ은 ㅁ을 좌우로 피어내어 발전(發展) 발산(發散)의 뜻을 표시한다./ ㅅ이 가을 쇠 사람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릇 생명적이고 활동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짐작하게 한다./ ㄹ 글자모양이 앞뒤로 흔들거려서 불안정 동요 전율 등을 표시한다고 보겠다.(중략) ㄱ 가륙 거륙 검 곧다 굳다/ ㅋ 크다/ ㆁ 나다 날다 너끈하다 녹다 느리다/ ㄷ 담는다 담는다 둔다/ ㅌ 터진다/ ㄹ 라발 말라리 흔들다 떨다/ ㅁ 마신다 먹는다 머금다 문다/ ㅂ 밥 범벅 버버리다 벌이다/ ㅍ 꽃이핀다 민족문화를 피어낸다 전국에 퍼진다/ ㅅ 사람 삶 숨 새 솟는다 상심하다/ ㅈ 자란다 전다 지지다/ ㅊ 차다 참 쳐든다 치솟다/ ㅇ 이다/ ㅎ 하나 하늘 하다 후유/ ㅌ 따르다 또 딱딱하다 똑똑하다/ ㅍ 싹 싹 싹씩하다
	한글 연구	한재준(2010)	ㅅ으로 시작되면 양의 기운이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의미의 낱말들 이다. ㅅ을 반복하면, 양의 기운이 더 강해지지요. ㅇ무언가 생명의 근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ㅇ에 줄기가 더해지면 ‘ㅎ’이 되어 의미가 커지지요. 줄기가 더해져 몸이 품이 되고, 물이 풀이되고 풀에서 피어나다 몸에서 피어나다 펼치다.(중략)
	언어	천소영(2000)	‘살다’라는 말은 우선 ‘ㅌ’라는 양성모음에 ‘ㄹ’과 같이 흐르는(구르는)듯한 소리받침을 가졌다. 말하자면 항상 유전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음성(音相)이다. (중략)
정재도(2008)		‘ㄹ’이 붙으면, ‘갈, 올, 할…….’들로 되어, 앞으로 다가올 ‘꿈, 설렘, 기다림, 알고 싶음’ 따위 바람이 있다.	

2.3. 어원(語源) 낱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의적 실마리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글자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을 살펴보는 것이 한글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말 중에서도 시간적, 환경적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어원(語源)성격의 낱말들을 모아봤다. 한글이 모든 만물을 품으려고 한 자연적인 글자이기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각 낱자별 낱말들끼리 공통되는 뜻으로 통하는 실마리를 볼 수 있다. [표 2참고]

표 2. 어원 낱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의적 실마리 (서정범, 『어원사전』, 2000)

낱자	어원낱말
ㄱ	감 값 곧 골 굴 구렁이 구름 구실 곳 곳 골 곱 광 구들 곧다 굴 굶다 굶다 굴 곳다 기르다
ㄴ	꼴 꽃 꿀 곱 끝 끼니
ㅋ	칼 깨다 커다 켄레 코 콩 크다 키
ㄴ	나 너 나라 나누다 나락 나리 나무 나이 날 남 논 농 누나 누리 누이 누님
ㄷ	다듬다 담 돌 들 디디다 덕 닳다
ㅌ	딸 땅 떡 똥 따리 뜨다 뜰 뜰 뜻
ㅍ	타다 탈 터 턱 털 토끼 토막 툇 툇 툇 티끌
ㄹ	-
ㅁ	마당 마루 마을 마음 만나다 만이 머슴 머리 말 물 매듭 맵시 몸 무리
ㅂ	바다 바람 받다 밤 벗 벌 봄 봉오리 불 붉다 붓다
ㅃ	뺨 뼈 뽕 뿌리 뿌리다 뽕
ㅍ	파 팔 팔다 팽개치다 포기 푸르다 푸세 풀 품다 풋내 피 피다
ㅅ	사람 사랑 살 살다 삶 새 새벽 샘 섬 손 솟다 숨 솟 스승
ㅆ	싹 쌀 씨
ㅈ	잡다 재 저물다 죽 죽다 줄 줍다 즈음 즐기다
ㅊ	짜 찌다
ㅊ	차다 처녀 춤 치다 치마
ㅇ	아버지 아내 아우 아침 알 얼굴 열매 우리 움
ㅎ	하나 하늘 하루 향아리 해

2.4. 기존 작품에서 표현된 한글의 표의성

한글의 표의성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 중 대표적인 작품만 추렸고, 관련 작업에 대해서는 계속 수집할 예정이다.¹⁴

그림 3. 류영모, 가온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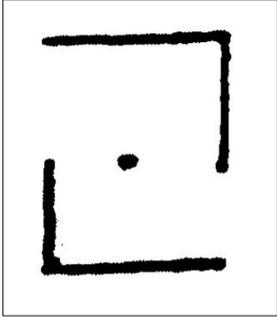


그림 4. 류영모, 맘바빠몸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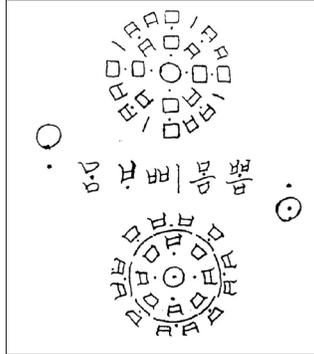


그림 5. 안상수, 문자도중 일부,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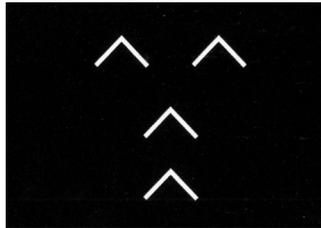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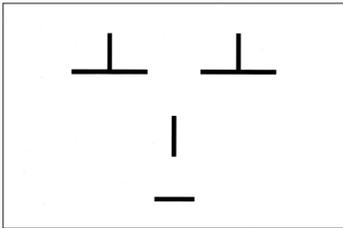


그림 6. 이규봉, 혼불,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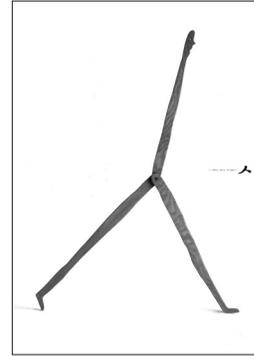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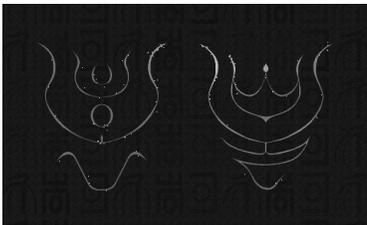


그림 7. 이성표, '사'은 생명이요, 솟음이요, 생기이다, 2001

그림 8. 한재준, 살, 술, 실,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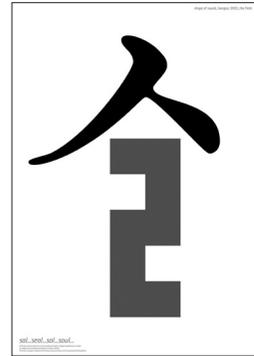


그림 9. 한재준, 잠, 잤, 줌,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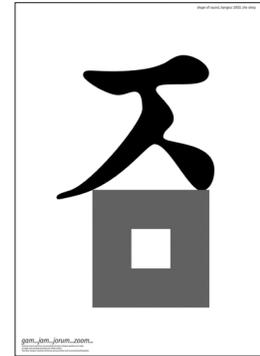


그림 10. 봄마중, 한재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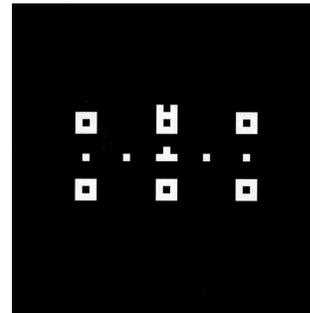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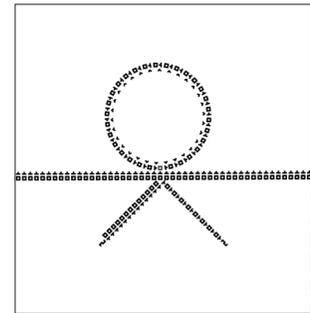


그림 11. 몸 mom, 한재준, 2010



3. 한글의 표의성을 드러낸 작품

지금까지 한글은 표음문자로서의 가치만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단순히 음소문자로만 알고 있었던 한글이 꼴의 생성 원리와 체계의 관계맺음에서 표의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글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한글꼴에 담긴 표의성을 본인의 작업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다. 본 작업이 좀 더 진행, 발전 되면 실제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그림 12, 13, 14, 15. 알, 울타리, 얼굴, 율행이, 2012

날자 〇 꼴에 담긴 생명성과 응축성을 어원날말에 담긴 표의적인 실마리와 연계하여 그림과 글자와 결합하는 방법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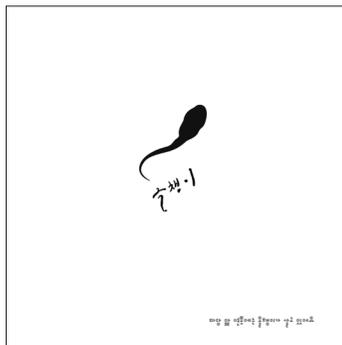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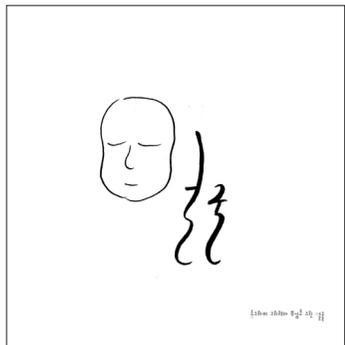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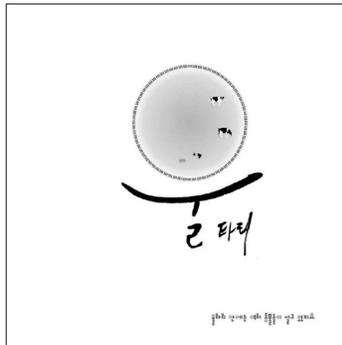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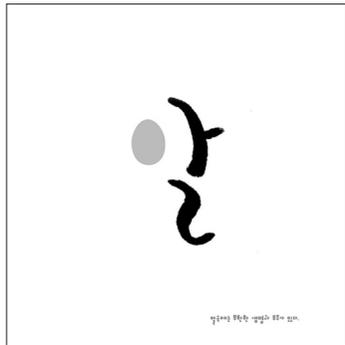


그림 16, 17. 새, 사람 2012

날자 ㅅ 꼴에 담긴 상승과 생명의 뜻을 구체적인 그림을 통해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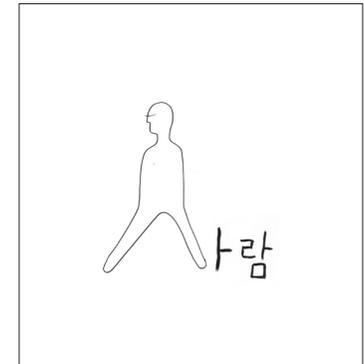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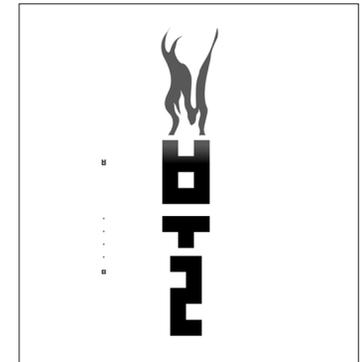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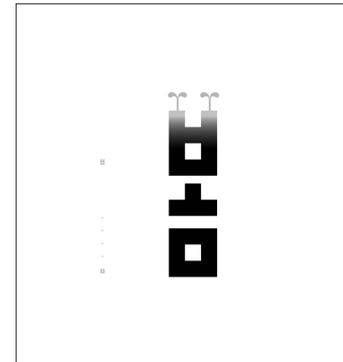


그림 18, 19. 봄, 불, 2012

날자 ㅂ의 세로획에서 보이는 솟음과 생명의 뜻을 어원날말에 담긴 표의적인 실마리와 연계하여 새싹이 돌아나는 이미지와, 불이 피어오르는 이미지로 표현했다.



4. 결론

연구자는 ‘꽃이 피다, 지다’라는 문장을 접했을 때, 피다와 지다를 보고, 읽고, 소리를 들을 때 다른 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공감각 적이고, 입체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때, 연구자는 한글이 인지와 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소통체계를 갖고 있다고 직감했다. 그 경험이 계기가 되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다.

앞서 정리한 한글의 표의성에 대한 실마리가 될만한 선행연구들과 자료들을 봤을 때, 한글을 단순히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한글을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드러내고 살려낼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한글의 표의적인 특성이 잘 표현되고 활용된다면 대외적으로는 한글을 접하는 이들에게 친근성에 있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글을 볼 때 새로운 시각과 열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내적으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하는데 있어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한글은 관념과 경험에 의해 익숙해져버린 대상으로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내야 할 대상임을 깨달았다. 특히,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시각을 갖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한글을 바라볼 필요를 느꼈다.

주

- 01 감정표현의 도구로 활용되는 한글이모티콘, 웃음소리를 하나의 자소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안상수(2011)는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인해 한글의 놀라운 점이 자연스럽게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 02 한글의 통합성에 대해 연구자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한글의 각 속성별 관계 즉, 소리와 꿀, 꿀과 뜻, 뜻과 소리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2012, 12-26쪽)
- 03 시각에 의하여 사상을 전달하는 문자, 넓은 의미에서는 사물의 개념을 표기하는 문자를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 04 이양, 김정오는 ‘낫’, ‘낫’, ‘낫’ 등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면 모두 ‘낫’으로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 예를 통해 봤을 때 한글은 표의문자의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1995, 215쪽)
- 05 한재준은 한글을 소리만이 아니라 의미까지를 아우르는, 곧 표음글자에 속하지만 표의성도 품고 있는, 인류사에 없던 독특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 123쪽)
- 06 동(動)과 정(精)의 개념은 단순히 밝음과 어두움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해와 달, 남자와 여자와 같은 상대적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 07 夫人之有聲本於伍行 故合諸四時而不悖 之伍音而不戾 무릇 사람이 소리(말소리)를 내는 것은 오행에 근본이 있는 것이므로 4계절에 어울려 보아도 어그러짐이 없고, 오음(궁상각치우)에 맞춰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훈민정음 해례본)
- 08 한글의 자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Chao(1968)가 한글에는 음성자질(features of the sounds 107쪽, phonetic features 197쪽)을 드러내는 글자들이 있다 했고, 그 이후 French(1976)가 변별적 자질까지 나타낸다고 표현한바 있다. 또한,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Geoffrey sampson)이 feature script라 명명했고(1985), 한글은 음소문자 중에서도 더욱 뛰어난 자질문자체계(資質文字體系, featural writing system)라고 한 바 있다.(2000) 김석연(1993)은 한글의 음(音)의 개념을 단순한 소리(sound)가 아닌, 인성제자(因聲制字)의 원리에 따라 소리를 음(音)과 성(聲)으로 구별하여 소리의 변별적 자질까지 반영시킨 Orthophonic/Allophonic alphabet이라는 새로운 글자로 명명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한글이 자질글자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바 있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09 其因聲加劃之義皆同 而唯○爲異. 그 소리(의 세기)를 바탕으로 획은 더한 뜻은 모두 같다. 그러나 오직 ○이 된 것은 다르다. (훈민정음 해례본)
- 10 권재선은 비을 가획한 원리는 소리를 내는 자리를 아래 입술과 윗입술의 두 곳으로 의식하여 글자를 오직 순음만 두 획을 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988, 180쪽)
- 11 이정호는 한글 초성글자형태를 자신만의 구조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ㄷ과 ㅎ글자에 대해, ㅌ과 ㅎ위에 원외(員外)로 ㅡ와 ㅣ (중단획(縱短畫)이요 결고 중서(縱書)가 아님을 유의 하여야 함)를 가획하여 명명위로 치솟고, 하늘로 헤어남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다. (1990, 87-107쪽)

- 12 반재원, 허정윤은 <28수 천문 방각도>와 글자들을 비교하면서 천문학과 글자 가획원리를 연결시키고 있다. ㄱ ㅌ은 지호(地戶)의 권역에, ㅈ ㅎ은 천문(天門)의 권역에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고, 지호의 위치는 음(땅)의 권역이기 때문에 ㄱ ㅌ에는 땅을 상징하는 一(획)이 더해졌고, ㅈ과 ㅎ은 천문의 권역에 위치해 있고, 지지(地支)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음에 해당되는 글자이기에 ㅈ과 ㅎ에 ●(원, 하늘)을 더하지 못하고 (각점, 땅)을 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07, 148-149쪽)
- 13 홍윤표는 제자방법과 자방고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으며, 가로 가획선에 비해 세로 가획선을 그 길이의 반 이하의 길이로 한 것을 전서(篆書)의 미가감법(微加減法) 중에서 미가법에에서 찾고 있다. 또한 창제 활자꼴의 각 당자 획의 길이와 비례와 형태의 이유 또한 미가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5, 62-64쪽)
- 14 [그림 3] 류영모는 ㄱ은 ㄴ을 그리고, ㄴ은 ㄱ을 높인다고 표현했다. 가운데 점을 찍은것은 하늘이고, 가운데 점을 찍음으로서 찰나속에 영원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했다. [그림 4] ㅁ과 ㅂ의 순환성과 관계성을 볼 수 있다. 원의 형태는 하늘을 의미하고, 맘을 바빠하고 몸을 뽑아냄으로서 하늘에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라 했다. (출처: 황준필, 「다석 류영모의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하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4)
- [그림 5] 이모티콘에서 밝은 홀소리와 어두운 홀소리가 표정과 감정과도 연계되는 것 또한 한글의 표의적인 실마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Alain le Quernec, 『Ahn Sang-Soo (Design & Designer) (french edition)』, Pyramid, 2005, 98-99쪽)
- [그림 6] (출처: 이규봉, <뜻으로 그린 한글 전, 이규봉의 아름다운 한글 이야기>, 2009)
- [그림 7] (출처: 이성표, <오사카 한글전>, 동경갤러리, 2001)
- [그림 8, 그림 9] (출처: 한재준, “살, 숲, 실 / 잠, 짬, 줌”, 『조형연구』 Vol. 8, 서울여자대학교 조형연구소, 2003, 16-19쪽)
- [그림 10] ㅁ과 ㅂ의 관계를 강조했고, 봄이되면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한다. (출처: 한글학회, 『한글새소식』 표지, 2009)
- [그림-11] ㅁ의 표의성을 표현한 것이다. (출처: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이상 탄생 100주년 초대기획전: 이상한 책>, 2010)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립국어원,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생각의 나무, 2008
- 권재선, 『훈민정음 해석연구』, 우골담, 1988
- 류영모, 『다석일지』, 여오, 1982
- 박재순, 『다석 류영모』, 현암사, 2008
- 반재원, 『한글 창제원리와 옛글자 살려 쓰기』, 역락, 2007
- 서정범, 『어원사전』, 동방미디어, 2000
- 안상수·한재준·이용제, 『한글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2009
- 이어령, 『너 정말 우리말 아니?』, 푸른숲, 2009
- 이정호,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아세아 출판사, 1990
- 정재도, 『우리말의 신비 ‘ㄱ’- 희망을 주는 ‘ㄴ’』, 지식산업사, 2008
- 천소영, 『우리말의 속살』, 창해, 2000
- 『太極圖說』
- 『訓民正音』(解例本)
- Jeffrey Sampson, 『세계의 문자체계』, 신상순 옮김, 한국문화사, 2000
- 구슬기, “한글의 통합성을 반영한 글자 그림책 개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2
- 황준필, “다석 류영모의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하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4
- 김석연, “정음 사상의 재조명과 부흥”, 『한글학회』 219호, 1993
- 김슬옹, “세종의 언어정책 담론: 훈민정음의 통합과 통섭전략”,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 문효근, “훈민정음 제자 원리”, 『세종학연구』 8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3
- 안명철, “훈민정음 제자원리의 기호론”, 『국어학』 45호, 2005
- 한재준, “지속가능한 한글의 가치”, 『글짜』 1권 1호, 2009
- 한재준, “한글 사용에 의한 우리 ‘얼’ 살리기”, 『정글』 제6호, 윤디자인연구소, 1997
- 한재준, “한글의 디자인 철학과 원리”, 『디자인학 연구』 42호, 한국디자인학회, 2001
- 홍윤표, “訓民正音의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국어학회』, 2005
- 안상수, “슈퍼토크 04 Insight In, Creative Out: 안상수”, 2011
- 한글날 조직위원회, “한글 주간 선포 원년, 562돌 한글날 큰잔치: 한글, 스승 -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훈민정음”, 경북궁 수정전, 2008

외국문헌

- Alain le Quernec, 『Ahn Sang-Soo (Design & Designer) (french edition)』, Pyramid, 2005
- Chao, Y. R., 『Language and Symbolic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 French, M. A., 『Observations on the Chinese Script and the Classification of Writing-Systems』, Haas (ed), Writing without Letter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76

초록

한글은 표음문자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낱소리글자계통의 음소문자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자유롭고 신선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글의 본질을 탐구하고 새로운 특성과 가치를 드러내려는 연구는 부족해 보이며, 기술발전에 따라 자연스레 가시화되고 있는 놀라운 한글의 특성에 대한 실례를 통해 한글이 단순히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글자라고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한글꼴에서 표의적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음에 동의할 수 있었고, 한글의 새로운 소통체계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위해 한글의 표의성과 관련되어 각 분야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연구 자료를 정리했다. 또한 한글꼴에 담긴 표의적인 실마리를 연구자의 작업으로 표현함으로써 한글이 가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글은 관념과 경험에 의해 익숙해져버린 대상으로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내야할 대상임을 깨달았다. 특히,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시각을 갖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한글을 바라볼 필요를 느꼈다.

Abstract

Hangeul is phonemic writing in phoneme letters which are developed the mostly among the phonetic symbols. Its value is recognized and free and fresh studies related to it are conducted continuously. On the contrary, studies which intend to research essentials of Hangeul and show new characteristics and value seem to be insufficient. It should be insufficient that Hangeul is a letter for writing languages simply through the actual examples of Hangeul's amazing characteristics which becomes visible naturally because of the technical development.

This researcher could agree that semantic clue can be discovered in shape of Hangeul and felt necessity to appear Hangeul's new communication system actively through this study. To achieve that, research materials related to Hangeul's semantic representation in each area were arranged. In addition, semantic clue of Hangeul shape were expressed by researcher's work so as to show possibility of Hangeul actively.

Through this study, this researcher realized that Hangeul is an object new value must be discovered continuously, not object accustomed by idea and experience. Especially, this researcher felt necessities to have various sights and see Hangeul from a combined point of view, as a designer.